

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

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 전면 금지

배꼽찌 등 4개 품목 신규 안전관리 대상 지정,
카드뮴 등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개정안 입법예고

개요

- 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는 낱뽕만 아니라 카드뮴 등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, 배꼽찌 등 4개 품목이 신규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.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지금까지 반지, 목걸이,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하여 낱뽕 일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였으나, 앞으로는 카드뮴, 안티몬, 비소 등의 유해물질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음
 - ※ 카드뮴 등 유해물질은 만성 중독될 경우 각종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
- 또한 최근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찌, 배꼽찌, 피어싱, 손톱장식품 등 4개 품목에 대하여도 어린이 장신구로 새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함
 - ※ 현재 관리되는 어린이 장신구(5 품목) : 반지, 팔찌, 목걸이, 귀고리, 펜던트 등



추진배경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3월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발찌, 배꼽찌 등 4개 품목 59개 제품을

시중에서 구입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.

- 이는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납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가공이 쉽고, 니켈카드뮴전지에의 수요가 사라지게 되어 남아도는 카드뮴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기술표준원은 관련제품을 해당업체에게 자진수거, 파기토록 권고하였음



향후 추진 계획

- 향후 모든 어린이 장신구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카드뮴 등 신규 유해물질에 대해 유럽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.
 - 이번 개정안에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함유량을 40 mg/kg미만으로 제한하고, 그 외 안티몬, 비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함
 - ※ 미국에서도 어린이장신구에 대한 카드뮴에 규제가 없어 의회에서 카드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
- 앞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의 위험은 언제까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, 우선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사례와 유럽 등 외국의 안전예방정책들을 분석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 - ※ 현재 관리대상 어린이용품 : 완구, 학용품, 섬유제품, 비비탄총, 어린이보호포장 등 56품목

〈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4종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〉

품 목	조사제품 수량	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수			
		납	카드뮴	안티몬	비소
손톱 장식품	40	16	11	16	14
피어싱	10	3	0	5	0
배꼽찌/발찌	9	1	0	0	0
계	59	20	11	21	14

※ EU 기준치(mg/kg) : 납(300) 카드뮴(40) 안티몬(560) 비소(47)